

GIST 임기철 총장, 학생연구자 대표단과 햄버거 미팅... 통합관리제 활용, 내년에도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약속

- 정부 R&D 예산 감소에 따른 학생연구자 등 인건비 부족 우려 해소
- 자원의 효율적·생산적 배분과 실사구시형 연구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



▲ GIST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관련 보직자들이 11일(수) 학생연구자 대표단과 함께 내년도 학생연구자 인건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.
학생연구자 대표단과 '햄버거 미팅'을 하고 있는 GIST 임기철 총장(가운데)

광주과학기술원(GIST)은 **임기철 총장이 11일(수) 학부·학과별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학생연구자 대표 11명과 만나 2024년도 학생인건비에 관한 대학 차원의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학생연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.**

이날 임 총장과 학생연구자 대표단의 만남은 **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(R&D)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**이라는 **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.**

오해 또는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격의 없이 소통할 것을 제안한 임 총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학C동 회의실에서 **학생연구자 대표단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.** 이 자리에는 김상돈 교학부총장과 송미령 입학학생처장 등 관련 보직자도 참석했다.

김 부총장은 "내년 학생인건비 소요 예산을 추산해 본 결과, **'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'를 통해 적립돼 있는 학생인건비 가용 재원을 활용하면 국가 R&D 연구비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**"고 설명했다.

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국가 R&D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.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. 연구비 유용을 막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013년 제도화한 것으로, 현재 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포함한 65개 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.

또한 김 부총장은 대학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내부 연구과제 공모 등을 통해 박사후연구원(포닥, Postdoc)과 같은 학생연구자가 아닌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.

한 학생 대표는 "학생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접하고 걱정을 하게 된 것이 사실"이라며 "오늘 간담회에서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, 한결 마음이 놓인다"고 말했다.

임 총장은 "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고,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의 실사구시형 연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추므로써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학생인건비가 상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"고 당부하며 "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비롯한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